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818호 현대불교 25
2011년 1월 12일(음 12월 9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자성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좀 믿으세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혼을 주장한다면 불법의 핵심인 무아의 사상에 위배되는 게 아닌지요. 그리고 마음과 영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 영혼 자체는 바로 육신과 둘이 아닙니다. 이 육신과 영혼이 있는 데다가 그 불씨 에너지, 원소 자체가 있어서 즉, 작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 주게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마음속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신이라고도 하고, 약신이라고도 하고 선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을 잘 쓰면 바로 선신이고,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약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약신으로서 삶을 악하게 살았으면 아주 악의적인 영혼이 되고요, 선의적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해 나가고 마음을 넓게 잘 쓴 사람들의 마음은 약신이 아니라 선신으로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 한군데서 영혼이 약신도 나오고 선신도 나옵니다. 영혼 자체가 자기 근본은 아닙니다. 영혼은 약신이 될 수도 있고 선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영혼이라는 이름, 마음을 잘 쓰는 데서 나오는 선신도 영혼이요, 약신도 영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혼백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돌아가시면 재를 곱게 쳐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도환생을 했으면 발자국이 나타나다가, 독사가 뒀으면 독사 흔적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행을 한 혼백이라면 귀신이 머리를 풀어서 산발을 한 모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양을 보더라도 그렇고,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내 주는 반면에 마음속에서 나와서 행동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거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업식' 이라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영혼의 업식은 따라간다고요. 자기의 불씨는 항상 밝아서 여려한테 그 업식 영혼이 그냥 열기설기 얽혀



그림 · 최주현

가지고 업식이 돼서 현실에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신도 되고 선신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약신으로서 너무 악하게 했다면 진짜 약신으로 활동을 할 거고, 선신으로서 행했다면 선신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시키는 거는 약신이고 선신이고 몽땅, 약신이 나오면 약신인 대로 거기다 놓고, 선신이 나오면 선신이 나오는 대로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업식이 다 이 몸속에 들어 있으니까 약신으로서 악행을 하게끔 이 마음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신으로서 행이 나올 때는 '어, 이것도 내가 저지른 일이나 내가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 놓고,

'이것도 공부고 재료지.' 하고 거기다 놓고요. 또 잘되고 싱그러운 일이 생기면 '이것도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거기다다 맡겨 놓고요.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 죽어서도 영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고자 백종(百種)을 마련해 놓았고 칠석(七夕)을 해 놔죠. 그리고 촛불제를 하고요. 앞으로 또 촛불제가 다가옵니다만 이 촛불 하나 켜는데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만 밝아질 뿐 아니라 자기 마음도 밝혀져서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촛불입니다. 더군다나 조상님들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쓰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모습 쓰고 나온 데로 대접을 받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들을 잘 해보십시오.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견 들고 쳐고 하는 데에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열심히 뛰는데도 안된다거나 이런 것도 업에 속하는 거니까, 그것도 본인이 촛불을 들고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거나 부모가 해 주거나 이래도 그건 훨씬 더 물리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 한 것만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제라는 것이 아주 못났든 잘났든 또는 업보

가 많은 업보가 적든 하여튼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 배우면서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고 업이 면제될 수도 있고, 살아 있을 때 잘 생각하고 계속 지극하게 수행해서 자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죽으면 더하고 탈함도 없기 때문에, 그게 새로이 의복을 다시 갈아입고 나오는 때라 교차로가 되거든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더 배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고 탈함이 없죠. 이 몸, 모습이 없으니까 부딪침이 없고, 부딪침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배울 게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꼭 이 도리를 배우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양면 가운데서,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혼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동시에 작용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없다면 바로 실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까닭은 바로 마음대기 이전 그 자체에 마음과 영혼이 둘이 아니게 결부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영혼을 각각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 또한 같이 돌아가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기 이전은 그대로 근본이 돼 있고, 그대로 근본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영혼이다, 마음이다. 이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근본과 마음대는 거와 육체가 움직여서는 그 자체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 공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이들을 기죽지 않게 키우려면...

문) 스님,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기죽지 않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도, 다른 아

26면으로 계속

인류 모두의 건강을 자신있게 책임진다

절수행 ♥ 절교육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수행 몸·마음 알아차림

청견스님 700만 배 절수행의 지혜로운 에너지!
부처님 크신 은혜 가피로 고통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건강을 회복하고, 소원을 성취한 기적 평안~ 감동의 기적같은 엄청난 체험이 많습니다.

- ▶ 절을 빨리하여 숨이 차고 험뻐거리며 얼굴이 붉어지고 혈압이 올라가면 절수행이 아니라 화난것!
- ▶ 절수행은 만병통치유 의 가장 좋은 인류사의 최고 건강법
- ▶ 소원성취 업장소멸의 왕중왕 수행기도법!

KBS 생로병사의 비밀 다수방영
SBS 0.2평의 기적

☎ (02)456-0035 (서울숲법당 · 부산 · 대구 · 광주)

www.법왕정사.kr

▶ 매주 화요일 절교육, 매일 절수행기도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부처님으로
나투셨는데
어찌하여 화당지옥 칼산
지옥 넘나들며
몬도가네가 되셨는가.
부디 새해에는
부처님으로 돌아오소서!!

대안은 채식입니다.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파초여행(주)

051)808-7370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 정 김정각 총무원장 김화엄

재단이사장	경원	총 회 의 장	경원	호 계 원 장	옹암
상 임 이 사	혜광	총 회 사 무 처 장	삼주	교 육 원 장	법해
이 사	화엄	총 회 의 원	이경담	감 사 원 장	석성
	도기		조경담, 대각	총 무 부 장	용운
	일명		대성, 덕봉	사 회 부 장	법영
	경담		도정, 도허	규 정 부 장	석경
	자명		만성, 혜일	교 무 부 장	지언
감 사 해 천	원각		법경, 제법	재 무 부 장	보월
	원경		일운, 지우	포 교 부 장	지현
			자건, 지명	홍 보 부 장	현암
			재성, 정일	홍 보 국 장	김지현
			지연	자비나눔실천회장	광명심

www.ilbung.org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 (02)998-8161 ~ 2 / 전송 (02)998-8384